

“한 순간만이라도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가족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폰 트랩가의 이야기’ 선보여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개관 15주년을 맞아 자체 제작한 가족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폰 트랩가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린다.

전당의 이번 공연은 지역기획사인 (사)소리문화창작소신과 (사)전북예술문화원의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 그리고 지역예술인들이 협업해 창작물을 완성한 터라 그 의미가 더 남다르다.

특히 공개오디션을 통해 발굴된 전북 출신이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점차 보이는 배우들을 재발견 해 무대에 세운 것도 작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음악을 사랑하는 견습 수녀인 마리아 역으로 캐스팅된 유리이는 전주예고와 중앙대 성악과를 졸업한 지역 인재이며, 가족을 사랑하는 퇴역 해군장교 역의 이대혁은 요코하마 국제 음악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한 실력자다. 영화로도 더 유명한 사운드 오브 뮤직은 폰 트랩가의 가정교사로 들어간 천방지축 수녀 마리아가 노래를 통해 폰 트랩가의 아버지와 아이들 간의 갈등을 와해시키고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을 그린다. 공연은 이들 가족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갈수록 희박해지는 가족애를 다시금 상기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이번 공연은 화려한 무대장치보다 음악에 주안점을 두었다. ‘노래미송’, ‘헤럴비시’ 같은 작품의 명곡을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로 들려준다.

이와 관련 (사)소리문화창작소신 박신 대표는 “저희가 스타 배우들이 총출동한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고 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연기도 잘하고 무대에 멋진데 왜 감동이 덜할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이유는 MR로 음악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준급 실력을 자랑하는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뒷받침된다면 극의 몰입도가 높아져 새로운 감동을 선물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어수선한 일도 많고 가족들끼리 서로 바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보는 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으면 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느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한 존재라는 걸 꼭 깨달았으면 해요.”라고 덧붙였다.

공연은 11일 오후8시, 12일 오후2시와 7시 전당 모야당에서. 문의 063)270-8000. /정해은 기자



사운드 오브 뮤직 홍보 포스터



전북문학회, 섬진강 물문학관에

2번째 작은 도서실 기증

전북문학회(관장 안도은) 섬진강 물문학관에 순창 세물리에 이어 2번째 작은 도서실을 기증했다고 10일 밝혔다. 문학관은 올해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 오지를 찾아 작은 도서실 기증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행사에선 물문학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책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전북 문인들과 도서출판(미래엔)의 도움으로 350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이날 기증된 책은 아동도서를 비롯해 주부·노인들의 여가와 취미 생활을 돕는 책까지 다양한 책으로 구성돼 있다. 문학관 관계자는 “학생시절 문학의 향수가 어린 책들을 기증함으로써 주변 주민들은 물론 방문객들에게도 유익한 휴식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문학회 문인들의 문학적 정서 향유를 위해 금년 말까지 4곳의 작은 도서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해은기자



‘여인의 꽃에서 수탈의 꽃으로’ 목화 특별전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오늘부터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2016년 열린 갤러리 특별전으로 ‘여인의 꽃에서 수탈의 꽃으로’를 11일부터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근대기 쌀과 함께 수탈의 대상이었던 ‘목화 수탈의 역사’를 조명해 보고, 우리 삶의 동반자와 같은 목화와 관련된 전통문화를 살펴보고자 마련했다.

전시는 1층 열린 갤러리에서 5가지의 주제로 구성됐다.

먼저 로비에서는 ‘여인의 씨줄 눈물의 낱줄과’ 꽃의 전쟁, 목화의 수난으로 목화 수탈의 역사를 시진전으로 펼쳐냈다.

내부 본 전시에서는 목화의 성장과정을 실물로 만날 수 있으며, 옷감을 만드는 작업에 쓰이는 다양한 유물을 통해 어려운 옛 길쌈의 세계를 생생하게 소개한다.

또한 근대기 목화 반출허인 동시에 무명 배 등 포목이 다양으로 수입되었던 군산항의 역사를 통해 군산과 목화의 인연을

재조명한다.

특별전의 전시연계 프로그램으로는 목화를 직접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계교육이 진행된다.

박물관에서 직접 재배한 목화를 만지고 느껴보는 체험기회가 제공되며, 더불어 배짜기 노래 등 전통 길쌈 과정을 영상자료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 기획과 뜻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됐다.

특히 목화 씨앗을 제공해준 독지가와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 낸 박물관 목화밭이 특별전의 계기가 되었으며, 그 외 많은 지역민의 도움으로 전시내용이 알차게 꾸며졌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은 시민들이 참여해 조성한 박물관 목화밭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우리 삶과 문화를 기억하는 목화가 사실은 근대기 수탈의 대상으로 민족의 아픔을 간직한 꽃이었음을 다시금 인식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선민기자

임실문화원, 청소년 지역문화 창조프로그램 운영

임실문화원(원장 최성미)이 청소년 지역문화 창조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다.

‘청소년 지역문화 창조프로그램’은 (사)한국문화원 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마을의 문화유적, 인물 문화 등을 어르신과 연구하고 공부하며 ‘벽화’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다.

임실고등학교 환경동아리, 미술동아리를 비롯해 임실동중학교 등 학생 30여명이 참여해 지난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상성마을에서 매주 토요일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총 30m 길이의 벽화 10여점을 완성했다.

/임실=진홍영기자

최성미 원장은 “임실을 상상마을은 백로 서식지, 천도교 임실교당, 임실치즈공장이 위치한 중요지역이다”며 “이러한 지역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고 이를 골목길 벽화를 통해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종료된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에 감동을 선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을 기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미 상성마을 이장은 “한여름 피아닉에서 학생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벽화를 예쁘게 그려줘 골목길이 환하게 밝아졌고 마을 분위기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고미희 아동문학가, 첫 장편동화집

‘타임머신을 탄 소년’ 출간

고미희 아동문학가가 첫 장편동화집 ‘타임머신을 탄 소년’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어린이들에게 ‘애들이! 남들이 다니는 학원에 못 간다고 기죽지 말고 꿈과 희망을 가져라!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설교한다.

작가는 “꿈이 부족하여 뭐든 쉽게 포기하는 요즘 어린이들에게 주인공 희재를 통해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해주자 했다”며 “이 책을 읽은 어린이들이 주인공 희재처럼 지혜롭게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미희 작가는 월간문학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주 시의회 시원으로 재직 중이다. 작가의 첫 장편동화집 ‘타임머신을 탄 소년’ 출간기념회는 16일 오후 3시 엔터테인먼트 컨벤션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트럼프 책’도 꿈틀... 판매량 50배 급증

미국 제45대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 관련 도서의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

10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트럼프 관련 책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모두 250권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 대선 직전 트럼프 책 판매량이 하루 평균 5권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50배 증가한 수치다.

현재 국내 출간 트럼프 책은 10여권인데, 이중 미 연방 하원의원 출신 김창준이 쓴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하라’가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강준만 교수가 쓴 ‘도널드 트럼프가 뒤를 이었다. 매일경제신문 편집 기자인 홍장암이 쓴 ‘트럼프는 어떻게 트럼프가 되었는가’는 세 번째로 많이 팔렸다.

트럼프 책은 교보문고 인터넷 일간 베스트셀러 순위권에도 진입했다. 트럼프가 쓴

‘불구가 된 미국이 9월 일일 베스트셀러 18위,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하라’가 19위를 차지했다.

트럼프의 또 다른 책인 ‘거대한 기술 또한 25위에 올랐다(인터넷 판매 기준). 세 책은 8월까지만 해도 베스트셀러 순위에 없었다.

예스24 집계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예스24는 트럼프 관련 서적이 9월 미 대선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10월 오전 11시까지 456권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대선 전 트럼프 책의 일일 평균 판매량이 4권 정도였던 것과 비교할 때 57배 가량 폭증한 수치다.

독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하라’를 가장 많이 사갔고, ‘거대한 기술’ ‘불구가 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는 어떻게 트럼프가 되었는가’ 등도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다. /뉴스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11월 11일〉

▷쥐띠
46년생: 문서를 움직이기에 좋은 때이다.
60년생: 손아래팔꿈치로 인해 근심할 일이 생기는 운.
72년생: 천운이 따르니 하고자 하는 일에도 좋은 결실을 맺는 운.
84년생: 이성을 조심하지 않으면 구설수에 휘말리니 주의하라.

▷소띠
49년생: 일의 결실을 맺으려던 뒷심을 잃지 말고 미치마치 마무리.
61년생: 기존의 행동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73년생: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손재수가 따르는 운.
85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은 운이다. 매사 잠시 쉬었다 가라.

▷호랑이띠
50년생: 좋은 기운이 가득으로 향하니 집안에 화기가 돈다.
62년생: 진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74년생: 말로 인한 화를 주의하라. 말 없는 일이 처리를 가는 법.
86년생: 힘들었던 사람에게는 사모로 인해 해결되다.

▷토끼띠
51년생: 자신의 예상보다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길운.
63년생: 천운이 따르는 운이나 결실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
75년생: 정신적으로 놀랄 일이 생기니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라.
87년생: 급하게 서두르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는 운이니 주의하라.
64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성가신 일들이 발생하니 참견은 금물.
76년생: 위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88년생: 의욕이 앞서서 운이나 위 사람에게 실수 할 수 있다.

▷뱀띠
53년생: 중요한 약속은 점심시간을 활용하라. 생각보다 좋은 결과.
65년생: 소위된 사람에게 선심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77년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이나 혼자서 해결.
89년생: 눈앞의 결실을 바라고 행동하지 말고 크게 생각하라.

▷말띠
54년생: 금전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미리 대비하라.
66년생: 연정자의 귀인이 나타나는 운이다. 결심을 잃지 마라.
78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90년생: 이성이 승리하는 때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도 좋은 운.

▷양띠
55년생: 대인관계, 외부적인 상황, 내부적인 상황이 막혀 있다.
67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는 좋은 운이나 금전운은 불리하다.
79년생: 건강에 주의하라. 사회적 계층문제가 생길 수 있다.
91년생: 타인과 대립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해결하면 좋은 결과.

▷원숭이띠
55년생: 문서운이 들어왔으니 문서를 주고받거나 서류를 정리하라.
69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나 큰일은 불가하다.
81년생: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일이 성사되니 동행하면 길하리라.
93년생: 시바수가 따르는 운이니 협동을 요하는 일은 미루라.

▷닭띠
57년생: 모든 일은 내부에서 일어나니 일을 크게 벌이지 말라.
69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고 심신을 어지럽게 한다.
81년생: 사람으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기는 운이니 말을 줄여라.
93년생: 원형은 불리하니 먼 곳으로 움직일 일이 있다면 다음으로.

▷개띠
48년생: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에는 잠시 시간을 가질라.
60년생: 경거망동하면 후회할 일이 생기니 해서는 안 된다.
72년생: 동기간과 일을 도모하면 돈 잃고 사람 잃는 운이니 주의하라.
84년생: 뒷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돼지띠
47년생: 소울했던 사람과의 관계회복에 힘쓰면 좋은 운이다.
59년생: 기운이 왕성하지 못하니 내실을 다지고 마음을 정비하라.
71년생: 금전운이 불리하다. 불필요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
83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위험했던 실태라가 풀리는 운이다.